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이웃돕기 나눔 실천

입력: 2026.09.22 17:57 / 수정: 2026.09.22 17:57

명절마다 지역 복지시설, 사회 취약계층시설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돌봄이웃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신수정 전남광주시 북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더팩트 | 전남광주=주남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21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22일 광주지사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광주시지회에 전달됐으며, 북구청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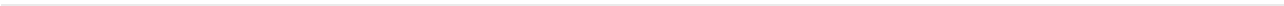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 사회의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정 모금·배분기관이다.

광주지사는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도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김철상 광주지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사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복지시설, 사회 취약계층시설 등을 방문과 함께 기부금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사회적 책임을 지속하고 있다.

bbb2500@tf.co.kr



Copyright©tf.co.kr